

## \* 계란 등급정보 \*



20개 업체에서 생산한 2천15만9천개에 대하여 등급관경을 실시하였으며, 1등급은 91.1%, 1등급은 8.1%, 2등급은 0.6%, 3등급은 0.1%를 차지하였고, 전월(286만6천개) 대비 5.6%(12만7천개) 감소, 전년동기(15개업체, 1천946만개) 대비 10.9%(2만9천개) 증가, 금월누계는 4천44만5천개로 전년동기누계(3천95만개) 대비 12.5%(49만5천개) 증가하였다.

계란등급판정 개수 및 출현율

(단위:천개, %)

중량 규격	계	1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개수	%	개수	%	개수	%	개수	%
누계	44,444천개	40,148	90.3	3,976	8.9	283	0.6	38	0.1
전월	22,866	20,485	89.6	2,222	9.7	142	0.6	17	0.1
당월계	21,579	19,663	91.1	1,755	8.1	140	0.6	21	0.1
황란	208	175	83.8	34	16.2	-	-	-	-
특란	15,761,912	14,407	91.4	1,256	8.0	79	0.5	21	0.1
대란	5,580	5,078	91.0	448	8.0	53	1.0	-	-
중란	28,950	3	11.9	17	59.1	8	29.0	-	-
소란	-	-	-	-	-	-	-	-	-

## \* 계란 관련 축산소식 \*

### ‡ 명품계란 개발, 경제사업 활성화에 최선

한국양계조합(조합장 오정길)은 지난 2월 20일 서울 한강호빌에서 정기총회 개최와 함께 지난해 사업을 결산했다.

오정길 조합장은 "지난해 사료값 인상, 계란값 하락 등으로 양계업계가 어려워 경제 사업에서 적자가 누적됐지만 신사업 활성화를 통해 흑자경영을 이뤄냈다"며 올해는 영천한방계란유통센터가 새롭게 출발함에 따라 명품계란 개발, 판매 방법의 다양화 등 부가 가치를 높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오 조합장은 "조합 합병 이후 관리조합을 벗어나기 위해 조합원을 비롯해 전 임직원이 노력해 왔다"며 올해는 반드시 관리조합에서 졸업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 ‡ 대형 할인마트, 계란 할인 홍보

대형 할인마트에 대한 한국양계농협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대형 할인마트가 계란 할인 행사를 너무 잦게 하면서 계란유통사업부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안 대형 할인마트에서는 한국양계농협이 요구한 10월과 11월 할인행사 이외에도 짧게는 3~4일 길게는 10일까지 매일 할인행사가 진행됐다. 월 1~2회 계란을 구매하는 일반 가정에서 월 1회의 할인행사는 결국 정상가격의 계란판매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계란의 70%를 유통하고 있는 상인들의 경우 수익이 많이 남는 식자재와 재래시장, 중소규모 슈퍼마켓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추세이다.